국어영역 고득점시리즈 2016

저자 | 진형석 변호사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최저 정답률 문제까지 반영

"유명 기출문제집도 잘못 해설한
숨막히는 22문제, 165페이지 사고과정"

국어정보원 followright.com

저자 소개 | 진형석 변호사

현재 법무법인에서 지식재산권 담당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우수논문공모전 수상
<국정보 - 국어영역, 네 눈에 정답만 보이게 해 줄게> 저자
<나쁜국어 독해기술> 저자
구 <나쁜언어 공략법> 저자
구 <언정보> 저자

글쓴이는 국어 교사나 학원 강사가 아니고 매일 국어 교재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다.
다만 고3 시절 모의고사 60점대, 수능에서는 70점대 성적을 받으며 대학 진학을 실패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부법과 노하우를 모두 연구하다보니 '국정보'식 공부법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국어 공부법을 통해 수능에서는 전국 0.03%의 성적을 받으며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몇 년씩 준비하는 법학적성시험(LEET)도 3일 공부하고 130점이 넘는 최고수준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주어진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능력은 국어시험만이 아니라,
변호사시험에서도 상위 3.5%(추정)의 성적을 받는데 톡톡히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을 혼자만 알기 보다는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하여 블로그에 써놓으니,
하루 수천명의 학생들이 몰려들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블로그를 보고 성적이 올랐다는 후기가 줄을 잇자,
조선일보 등 언론사에서도 이러한 공부법을 소개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2008년 <언어영역, 네 눈에 정답만 보이게 해줄게>라는 학습서를 내게 되었고,
이 책은 출간 즉시 각종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게 되어 이후 비슷한 책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step-1 맛보기

STEP-1에서는 여지껏 어떤 책에서도 다루지 않던
100%의 문제 풀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나요?

1 step-1에서의 목표와 학습 방향

10, 20%가 아닌 100%의 문제 풀이의 도입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치해야 될 것은 우선적으로 문제 그 자체입니다. 많은 책들이 이론을 배우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언어는 수학과 같이 기본적 공식을 배우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실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점을 배우고 연습할지 분석해 봅시다.

사실 이 책을 만들게 된 가장 큰 문제의식은 어떤 책도 100%의 문제 풀이를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정된 분량을 가지고 문제와 해설을 담기 위해서는 간단한 풀이만을 소개해야 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어떻게 된다는 속담처럼 처음부터 일정한 부분을 건너뛰는 것은 때

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또한 문제되는 것은 '정답' 이라는 범인을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기가 일쑤이고, 심각한 경우는 아예 의식하지 못하는 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치밀하게 처음 시작하는 학생의 시각에서는 의문을 가져 보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는 30% 정도의 논리적 전개를 통해서 답을 확정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그것에 충족하는 선택지를 답으로 확정하고 넘어가야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100%로 풀 수 있어야 나중에 30%~40%로 푸는 것이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100%로 풀 수 있는 학생이 30%를 가지고 답을 확정하는 것이 정확할지, 30%만 풀 수 있는 학생이 30%를 가지고 답을 넘겨짚는 것이 정확할지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아주 명확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운 문제는 30%가 아니라 60~70%까지 풀 수 있는 해결력을 가져야만 헷갈리는 선택지 사이에서 정답을 확실하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30%로만 공부한 학생은 60%를 요구하는 문제에서도 30%로만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헷갈리는 선택지가 2개 이상 존재하게 되며 결국 답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5년 이후의 수능은 그러한 문제가 많이 적어져서 이전의 수능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공부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도 그러한 공부만으로도 어느 정도 좋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가령 40%만 알아도 답을 고를 수 있도록 출제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항상 공부의 기준은 어려웠던 수능에 토대를 두고 어려운 수능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2010학년도에 시행되었던 두 번의 모의평가에서도 약간 어려워졌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막상 1등급을 받는 학생들 점수는 특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워졌다면 모든 학생들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눈에 띄게 낮아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한 시험이 일부에게만, 특히 평소에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만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로만 공부했는데 갑자기 50%를 물어보니 단 한 문제도 만만하지 않은 탓입니다. 반면 평소 100%로 연습했던 학생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수능 시험은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지만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단 한 번 보는 시험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첫 단계에서의 시작은 100%의 풀이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2 구체적 연습을 위한 적용 예시

다음 문제를 우선 고민해서 풀어 보세요. 시간 제약 없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생각을 해 보세요.

2007학년도 수능 ● 40번 문제

많은 미술가들은 대중 매체를 조작이나 선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불신하며, 대중문화를 천박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해 왔다. 예를 들어 샌들은 '자유를 위한 힘찬 일격'이라는 조각 작품에서 힘찬 몸짓으로 텔레비전을 부수고 있는 인물을 형상화하여 대중 매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그저 전면적인 비난과 거부로는 대중 매체의 부정적 측면을 폭로하거나 비판하려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 작품만으로 작가가 왜 그처럼 분개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텔레비전 수상기 몇 대가 부수어진들 대중 매체에는 아무 변화도 없을 것이기에, 이 힘찬 조각은 오히려 무력해 보이기도 한다.

대중 매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소위 '근본주의 회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경향의 미술가들은 회화 예술만의 특성, 즉 '회화의 근본'을 찾아내려고 고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극단으로 추구한 나머지 결국 회화에서 대상의 이미지를 제거해 버렸다. 그것이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는 사진, 영화, 텔레비전 같은 대중 매체를 부정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물의 이미지와 세상의 여러 모습들이 사라져 버린 회화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주제나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 대신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방식이 중요해졌고, 그 자체가 회화의 주제가 되어 버렸다. 이것은 대중 매체라는 위압적인 경쟁자에 맞서 회화가 택한 절박한 시도였다. 그 결과 회화는 대중 매체와 구별되는 자신을 찾았지만, 남은 것은 회화의 빈곤을 보여 주는 텅 빈 캔버스뿐이었다.

회화의 내용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대중 매체를 성공적으로 비판한 경우는 없었을까? '팝 아트'는 대중문화의 산물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그 속에서 대중 매체에 대한 비판

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는 특히 영국의 초기 팝 아트에서 두드러진다. 그들은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그것을 맥락이 다른 이미지 속에 재배치함으로써 생겨나는 새로운 의미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비판적 의도를 표출했는데,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미국의 팝 아트는 대중문화에 대한 부정도 긍정도 아닌 애매한 태도나 낙관주의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거기에도 비판적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작품들이 있다. 리히텐슈타인이 대중문화의 하나인 만화의 양식을 본떠 제작한 '꽈광!' 과 같은 작품이 그 예이다.

리히텐슈타인은 색이나 묘사 방법 같은 형식적 요소들 때문에 만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만화가 세계를 '어떻게' 재현하는지에 주목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만화가 전쟁을 다룰 경우, 전쟁의 공포와 고통은 밝고 경쾌한 만화의 양식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게 된다. '꽈광!' 에서 리히텐슈타인은 만화에서 흔히 보는 공중전 장면을 4미터가 넘는 크기로 확대하여 과장하고, 색도 더욱 장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만화의 재현 방식 자체를 주제로 삼았다. 이 점에서 '꽈광!' 은 추상화처럼 형식에 주목하기를 요구하는 그림이다. 그러나 내용도 역시 작품의 감상에 중요한 요소로 관여한다. 관람객들이 '꽈광!' 의 폭력적인 내용과 명랑한 묘사 방법 간의 모순이 섬뜩한 것임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작가의 비판적인 의도가 성취되기 때문이다.

● **관람객의 입장에서 '꽈광!' 이 대중문화에 대한 성공적인 비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명랑한 색감과 만화적 재현 방식 사이의 부조화
② 확대된 크기와 다른 형식적 요소들 간의 충돌
③ 밝은 색채와 세밀한 묘사 방법 간의 불협화음
④ 폭력적 주제와 비판적 의도 간의 불일치
⑤ 재현된 내용과 만화적 양식 간의 모순

처음 소개할 문제는 2007학년도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대개의 책에서는 이 문제를 비판적 사고라든지 일반적인 추론적 사고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러나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추론의 과정은 필요 없고 면밀하게 한 치의 오차 없이 답안이 지문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을 추론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굳이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분류하고 그때그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고 방향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차원에서 '추론적 사고' 라는 표현은 폐기하기로 합니다.

① 우선 문제 제시를 통해서 답의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답의 범위를 축소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누구나 말하듯 정답의 근거는 문제와 지문에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문제만을 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걸리게 되는 부분은 특정한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매지 않고 처음부터 그 부분을 중요하게 검토하는 것이 답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죠? 따라서 문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잡아 줘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일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문제를 봅시다.

- **관람객의 입장에서 '꽈광!' 이 대중문화에 대한 성공적인 비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큰 범위부터 작은 범위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서울 경복궁을 보러 부산에서부터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면, 도로 표지판을 참고하게 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서울' 이라고만 쓰여 있는 것을 보고 따라가다가 서울 근처에 이르러서 이제 서울 내부의 지명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구체적인 장소로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답 찾기' 도 이러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꽈광!' 이 되겠습니다. 우선 글 전체에서 '꽈광!' 이 언급되는 범위에서 이 문제의 정답과 관련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관람객의 입장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성공적인 비판' 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여행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종로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을 찾아가면, 서울 안에서는 다시 '종로구' 를 찾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선 이 글에서도 '꽈광!' 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관람객' 이라든지 '대중문화', '비판' 등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문을 통해서 앞

에서 세워 놓은 계획에 의해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② 문제 제시를 통해 발견한 정답의 경로를 지문을 통해 따라가기

먼저 '꽈광!' 이 어느 정도부터 등장하는지 찾아봅시다. 대개는 문제를 푸는 것은 글을 읽은 다음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학생들은 글의 어느 정도에서 '꽈광!' 이 등장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모른다고 해도 다시 읽어 보면서 찾아보면 되겠죠. 어렵게 의미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글자 그대로 '꽈광!' 을 찾아보면 됩니다.

찾아보면 **단락3**의 맨 마지막 문장에서 처음 '꽈광!'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단락4**에서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이제 아까 말했던 여행 이야기로 다시 생각해 보면, 부산에서 열심히 달려서 서울까지는 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종로구를 찾아가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꽈광!' 을 발견했으니 이제 '관람객', '대중문화', '비판' 을 찾아가야 합니다.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시각적인 능력으로만 위의 단어들을 찾아보면 **단락4**의 마지막 문장에서 '관람객', '비판' 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 관람객들이 '꽈광!' 의 폭력적인 내용과 명랑한 묘사 방법 간의 모순이 섬뜩한 것임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작가의 비판적인 의도가 성취되기 때문이다.

대개의 문제집은 이 문장까지만 제시해 두고 '⑤ 재현된 내용과 만화적 양식 간의 모순' 을 바로 답으로 확정하고는 합니다. 물론 가볍게 생각해 보면 나머지 선택지가 답과는 동떨어져 있고, 지문의 '폭력적인 내용' 은 선택지의 '재현된 내용' 과 대응되고, '명랑한 묘사 방법' 은 '만화적 양식' 과 대응되고 '모순' 이라는 단어는 양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답으로 확정해도 적절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답의 해설로서는 맞는 설명이기는 합니다만 중간에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결여된 것으로 학생들에게 공부를 도와주는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정도로만 공부하게 되면 언어영역적 사고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숨어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③ 문제 풀이 후, 숨어 있는 단서 찾기

숨어 있는 내용은 지문에서의 '명랑한 묘사 방법' 이 왜 선택지에서의 '만화적 양식' 과 대응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학생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난감해 하거나 대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의 감각은 이 두 가지 표현이 당연히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선입견에 의한 것이거나 특정한 문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류에 의한 것으로서 답을 고르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까지 '지문에 의해서' 잡아낼 수 없으면 그러한 풀이는 지문에 의거한 풀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최종적인 단계에 있어서는 자신의 감(感)에 의지하게 됨으로써 이 문제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는 합리적으로 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두 표현이 대응되는 것일까요? 그것 역시도 지문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단락4**의 3, 4번째 문장을 검토해 봅시다.

> 예를 들어 만화가 전쟁을 다룰 경우, 전쟁의 공포와 고통은 밝고 경쾌한 만화의 양식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게 된다. '꽈광!' 에서 리히텐슈타인은 만화에서 흔히 보는 공중전 장면을 4미터가 넘는 크기로 확대하여 과장하고, 색도 더욱 장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만화의 재현 방식 자체를 주제로 삼았다.

단락4-3에서 '밝고 경쾌한 만화의 양식'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만화의 양식이라는 것은 밝고 경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문장에서는 '명랑한 묘사 방법'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에서 사고 과정을 정리하게 된다면 한 80% 정도 풀이를 한 게 되겠죠. 평소에 지문에만 의거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다면 여기서도 좀 더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에서도 '밝고 경쾌한' 이 '명랑한' 과 연결될 수 있겠지만요.

단락4-1에서 '색이나 묘사 방법 같은 형식적 요소'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연결 고리를 발견할 수 있죠? '형식적 요소' 의 아래에 '색이나 묘사 방법' 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양식' 이 '일정한 모양이나 형식'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단락4-3**의 표현을,

○ '만화의 양식(→형식→묘사 방법)' 으로 연결시키고,

○ '밝고 경쾌한(→명랑한)' 으로 연결시킬 수 있죠?

◎ 정리하자면 **단락4-3**의 표현은 '명랑한 묘사 방법' 이 되겠네요.

(밝고 경쾌한 게 왜 명랑한거냐고요? '명랑' 을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흐린 데 없이 밝고 환하다는 것이 '명랑' 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아마 대개의 학생들은 이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못해도 감은 잡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락4**의 마지막 문장, '폭력적인 내용과 명랑한 묘사 방법 간의 모순' 은 '재현된 내용과 만화적 양식 간의 모순' 과 완벽하게 대응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는 것이 100%의 언어영역적 사고 방법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일반 기출문제집이나 학원 강의 등은 이러한 단계까지 잡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뛰어넘기' 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밀하게 본다면 기존 교재들에서의 풀이는 그 문제를 제대로 푼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정한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면 그 답안 외에는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기존의 경험에 의한 풀이인 것이지, 그 문제를 끝까지 풀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많은 학생들은 기출문제 분석을 한다고 하면서 대개 그것에 대한 가이드로 이러한 해설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한다면 사고의 틀을 스스로 제한하여 좀 더 수능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가장 높이 뛰어봐야 합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요? 물론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는 시간 내에 문제 풀이를 마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일정 정도는 넘겨짚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평소에 이러한 훈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겨짚는 것과 이러한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넘겨짚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쉬운 편(쉽다고 표현하기는 했는데 실제 이 문제도 당해 수능에서 정답률이 낮은 순으로 7위를 했던 문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답을 고르지 못했다는 것이죠.)이라서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러한 정확한 추론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서 좀 더 정확하게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한지 다음 문제를 통해

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를 우선 고민해서 풀어 보세요. 시간 제약 없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생각을 해 보세요.

2009학년도 수능 ● 40번 문제와 변형 문제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본 사람은 한 번쯤 '어떻게 작은 파일 안에 수십만 장이 넘는 화면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을 것이다. 동영상 압축은 막대한 크기의 동영상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만 남김으로써 화질의 차이는 거의 없이 데이터의 양을 수백 분의 일까지 줄이는 기술이다. 동영상 압축에서는 일반적으로 화면 간 중복, 화소 간 중복, 통계적 중복 등을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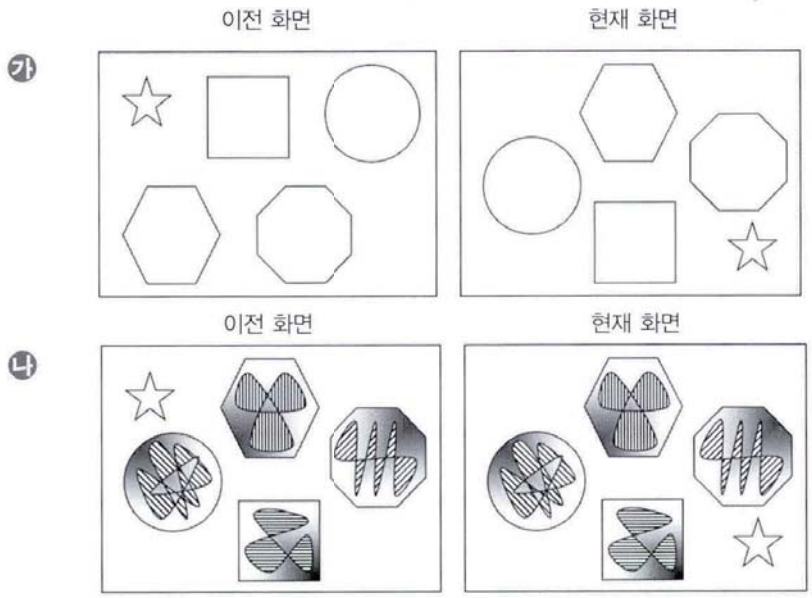
동영상은 연속적인 화면의 모음인데, 화면 간 중복은 물체가 출현, 소멸, 이동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이 비슷한 것을 말한다. 스튜디오를 배경으로 아나운서가 뉴스를 보도하는 동영상을 생각해 보자. 현재 화면을 이전 화면과 비교하면 아나운서가 움직인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따라서 현재 화면을 모두 저장하지 않고 변화된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만 저장하면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나의 화면은 수많은 점들로 구성되는데, 이를 화소라 한다. 각각의 화소는 밝기와 색상을 나타내는 화소 값을 가진다. 화소 간 중복은 한 화면 안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변화가 규칙적인 것을 말한다. 동영상 압축에서는 원래의 화소 값들을 여러 개의 성분들로 형태를 변환한 다음,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성분들만을 저장한다. 이때 압축 전후의 화소들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으나 변환된 성분들을 저장하는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질의 차이가 별로 없이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런데 화면이 단순할수록 또 규칙적일수록 화소 간 중복이 많아서, 제거 가능한 성분들이 많아진다. 다만 이들 성분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 화면이 흐려지거나 얼룩이 지는 등 동영상의 화질이 나빠진다. 이러한 과정은, 우유에서 수분을 없애 전지분유를 만들면 부피는 크게 줄어들지만 원래 우유의 맛이 거의 보존되는 것과 비슷하다.

압축된 동영상에 저장해야 하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는 위의 과정을 거쳐 이미 많은 부분이 제거된 상태이다. 통계적 중복은 이들 데이터에서 몇몇 특정한 값이 나오는 빈도가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것을 말한다. 이때 자주 나오는 값일수록 더 짧은 코드로 변환하여 저장하면, 데이터 값을 그대로 저장할 때보다 저장하는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와 ㉯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는 흑백 화면이며 화소의 개수가 모두 동일함.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 사이의 화면 간 중복 정도	현재 화면 내의 화소 간 중복 정도
①	㉮가 더 높다	㉮가 더 높다
②	㉮가 더 높다	㉯가 더 높다
③	㉯가 더 높다	㉮가 더 높다
④	㉯가 더 높다	㉯가 더 높다
⑤	㉮와 ㉯가 같다	㉮와 ㉯가 같다

이번 문제는 2009학년도 수능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딱 보는 순간부터 어렵게 생겼습니다. 실제로도 입시 학원들의 통계 조사에서도 2009학년도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 다섯 개 뽑아보라고 하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문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하위 정답률 4위) 그 정도의 문제라면 대개의 학생들은 감도 잡지 못하고 답을 찍는 경우가 많거나 어느 정도 생각의 과정을 거쳤더라도 매력적인 오답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파악했다면 굳이 헷갈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학생들은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점을 토대로 사고해야 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해서 정답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소 100%로 연습했다면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전혀 긴장할 필요 없이 연습한대로만 풀어 가면 쉽게 답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찾고 종로구를 찾고……. 어렵지 않죠?

이번 문제는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보다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에 종로구를 찾으려 하지 말고 쉬운 문제를 통해서 돌아가는 연습을 해 봅시다. 우선 아래의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세요.

길잡이 문제

1 위 글을 바탕으로 '화소'의 의미를 파악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텔레비전이나 사진 전송에서, 화면을 전기적으로 분해한 최소의 단위 면적.
②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 수많은 점.
③ 비디오카메라 등에서 빛에 의해 각기 독립적으로 반응하면서 화면을 구성하는 2차원적인 화면의 최소 단위.

2 위 글을 바탕으로 '화면 간 중복'의 의미를 파악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물체가 출현, 소멸, 이동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이 비슷한 것을 말한다.
② 중복된 화면이 순차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말한다.
③ 현재 화면에서 비슷하게 중복되는 모양이 많아서 단순한 화면 구성을 할 수 있음을 말한다.

3 위 글을 바탕으로 '화면 간 중복 정도가 높다'는 말의 의미를 추론하시오.(주관식)

4 위 글을 바탕으로 '화소 간 중복'의 의미를 파악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의 화소 값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말한다.

② 한 화면 안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규칙적 변화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③ 한 화면을 구성하는 화소들 중 제각각 양 옆의 화소와 중복된 화소 값을 가지는 경우.

5 위 글을 바탕으로 '화소 간 중복 정도가 높다'는 말의 의미를 추론하시오.(주관식)

6 위 글을 바탕으로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말의 의미를 추론하시오.(주관식)

길잡이 문제 정답과 해설

1 ②

해설 : 정답이 아닌 나머지 선택지들도 실생활에서는 '화소'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실제 이 선택지들은 사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제시에서 '위 글을 바탕으로 ~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였으니 그 취지에 가장 맞는 것은 위 글의 내용을 그대로 붙여 넣은 ②가 되겠습니다. **단락3-1**, '하나의 화면은 수많은 점들로 구성되는데, 이를 화소라 한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①

해설 : 1번 문제와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물체가 출현, 소멸, 이동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이 비슷한 정도가 높은 것

해설 : 2번 문제를 통해서 '화면 간 중복'이라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였다면 당연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4 ②

해설 : 1번 문제와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5 한 화면 안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변화가 규칙적인 정도가 높은 것

해설 : 3번 문제와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6 **화소 값이란 각각의 화소가 가지는 밝기와 색상 값이므로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은 밝기와 색상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해설 : 이 문제가 의도하는 중요한 내용은,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을 문제 제시의 취지에 맞게 '위 글을 바탕으로' 추론하였는지의 여부입니다. 대개의 학생들은 이 단계에서 '화소 값'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화소 값'이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글에서 제시해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단락3-2**, '각각의 화소는 밝기와 색상을 나타내는 화소 값을 가진다.'를 필히 참고하였어야 합니다.

만약 이 수능 문제는 틀렸는데, 위의 길잡이 문제들은 어느 정도 맞았다면 아직 수능을 위한 추론적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개의 교재와 강의에서 '추론적 사고'의 갈래에 넣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추론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앞의 길잡이 문제들의 답을 추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다뤘던 길잡이 문제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들을 단순히 지문과의 비교에 의한 사실적 판단(경박하게 말하면 퍼즐 맞추기)으로 모두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화소 값 중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학생들이 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의 길잡이 문제와 같은 '글자와 글자의 일치 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글자와 영상의 일치 관계'를 묻게 되면 그 중간의 과정이 되는 길잡이 문제들을 학생 스스로 밟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것들을 추론해야 한다고 하여서 추론적 사고의 문제로 부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러한 포맷을 갖춘 문제는 더 노골적으로 지문에서 객관적인 정보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앞에서 풀었던 길잡이 문제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잡아낼 수 있는 이른바 수능 언어영역의 객관적 추론 능력이고, 그 추론 능력이라는 것은 좀 더 까다로운 퍼즐 맞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푸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❶ 우선 문제 제시를 통해서 답의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문제 제시를 보면, 이 역시 위 글을 바탕으로 ㉮와 ㉯를 비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역시도 문제 제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석해야 합니다.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이미 확정적으로 제시된 것들(문제 제시, 〈보기〉, 선택지의 공통된 항목 등)은 모두 넓은 범위에서 '문제 제시'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답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전 화면, 현재 화면, 흑백' 과 같은 단어는 다들 고민 없이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제시되는 '화소' 라는 단어는 분명 여러분이 적어도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에서 다시 한 번 그 개념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학생들에게 미리 알기를 요구하지 않는 것 → 문제와 지문을 통해서 추론해야 하는 것' 으로 자동적으로 생각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 연습 과정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화소가 무엇일까? 나는 잘 모르니 글에서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길잡이 문제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넓은 의미의 문제 제시' 에서 주어지는 단어나 문장 중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열해 본다면, '화소', '화면 간 중복', '화소 간 중복', '화면 간 중복 정도가 높다/낮다.', '화소 간 중복 정도가 높다/낮다.' 정도가 우리가 지문을 통해 '추론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미 '추론' 이라는 말은 앞의 문제에서 폐기하자고 했으므로 이제 편하게 지문을 통해 '찾아봐야 할' 내용이라고 말하기로 합시다.

❷ 문제 제시를 통해 발견한 정답의 경로를 지문을 통해 따라가기

지문을 확인하면 **단락3-1**에서 화소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 간 중복' 은 **단락2-1**에서, '화소 간 중복' 은 **단락3-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에서 등장하는 다소 애매한 개념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습을 할 때는 가급적 이와 같이 학생들 모두가 선험적으로(미리) 알고 있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지

문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면 간 중복 정도가 높다' 는 것은 지문에서 주어진 문장으로부터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이 비슷한 정도가 큰 것' 이라고 객관적으로 끌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 자체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없어도 문제에 적용까지는 가능합니다. 〈보기〉의 ㉯가 ㉮보다는 이전 화면과 현재 화면이 좀 더 비슷합니다. ㉮에서는 도형들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화면 간 중복 정도' 에 대해서는 지문에서는 예시를 통해 좀 더 쉽게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을 볼 때,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이 비슷한 정도가 큰 것' 만으로 문제 풀이가 어렵다면 그 내용 아래에 주어진 예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을 비교하면 아나운서가 움직인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에서 좀 더 실제적으로 화면 간 중복이 무엇인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내용은 안 읽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소 간 중복' 이라는 것을 알아봐야 하는데, 글에서는 이것을 '화소 간 중복은 한 화면 내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변화가 규칙적인 것을 말한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설명을 읽고 문제에 바로 적용하기 이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제시된 설명 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개념, 즉 '화소 값의 차이' 라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소 값의 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아까 찾았던 화소의 개념,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 수많은 점들' 이라는 것만으로는 '화소 값의 차이' 라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단락3-2**를 보면, '각각의 화소는 밝기와 색상을 나타내는 화소 값을 가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소 값의 차이' 라는 것은 '밝기와 색상 차이' 라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화소 간 중복 정도가 높다' 는 것은 간단하게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정도가 되겠고, 한 번 더 바꿔 말하면,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각각의 화소의 밝기와 색상 차이가 별로 없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가 ㉯에 비해서 밝기와 색상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화소들은 모두 하얀 경우가 많죠. 흰색 옆에 흰색이 놓인다는

뜻입니다.('흰색-흰색-흰색-검은색-흰색'과 같이) 그러나 ㉯는 어두운 단계(밝기)가 아주 미세하게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검은색-짙은 회색-밝은 회색-흰색) 그러므로 이제 이 단계에서 답을 확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흰색-흰색은 차이가 없지만, 검은색-짙은 회색은 흰색-흰색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❸ 문제 풀이 후, 숨어 있는 단서 찾기

그러나 많은 수의 학생들은 이것을 약간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각각의 화소의 밝기와 색상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 '흰색-검은색-흰색'보다 '검은색-짙은 회색-밝은 회색'의 경우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답과는 반대로 추론하게 됩니다. 물론 엄밀하게 생각할 때는 ㉮에서 흰색-흰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다시 바꿀 수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 그런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그 나름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정도의 사고 과정에서 답을 찍기에는 약간 애매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때 **단락3-6**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단순할수록 또 규칙적일수록 화소 간 중복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나운서의 예를 살펴봤듯이 이 부분도 아래의 구체적 부분을 참고하여 문제 풀이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와 ㉯ 중에 화면이 단순하고 규칙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경우의 자연적인 해석은 ㉮가 좀 더 단순하고 규칙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보다 좀 더 명확하게 정답을 ③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엄밀하게는 '많다'는 것을 토대로 '높다'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다'는 것은 한 화면에서의 화소 중복 정도의 절대적 수치가 되겠고, '높다'는 것은 ㉮와 ㉯ 사이에서의 상대적 우열 관계를 나타내는 것, 즉 '㉮와 ㉯ 중에서 어느 것이 화소 간 중복이 더 많은지'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여기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앞서 생각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반 기출문제집 등에서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A : 단어 추론만을 가지고 답을 골랐는데, 단어 추론 과정에서 화소 값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론하지 않고 있고 뛰어넘고 있다. **단락3-6**을 통해 애매한 부분을 확정하고 있지 않다. 단순히 평가원의 공식 답변 등에만 의존하여 해설을 구성하였지만 학생들의 자연적 사고 수준은 그렇지 못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

B : 단어 추론의 과정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곧장 **단락3-6**을 통해서 답을 확정했는데, **단락3-6**은 단어 추론에 보충적으로 쓰일 수 있을 뿐이며 그것이 처음부터 답의 근거로 쓰이게 된다면 다른 문제를 푸는 연습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해설이다. 단어 추론이 수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이고 또한 모든 종류의 고급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설은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C : 해설자가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쓴 해설로 평가할 수 있다. 해설의 핵이 되는 많은 부분이 빠져 있거나 생략되어 있다.

D : 모든 부분을 뛰어넘어서 해설풀이자의 문제에 대한 이해도조차 측정하기 쉽지 않다.

재미있는 점은 이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많아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특히 언어영역에서 '출제자의 사고' 라는 것을 많은 학생이 중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한 출제자의 사고는 어떤 것일지 살펴볼 수 있겠죠?

〈평가원의 문제 해석에 대한 밑줄 및 번호 부여,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 이의 제기는 '〈보기〉에서 ㉮보다 ㉯가 화소 간 중복이 더 높다'는 주장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 지문에서는 "화소 간 중복은 한 화면 안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변화가 규칙적인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 경우는 5개 도형의 외곽선을 구성하는 화소들(검은 선)과 그 밖의 화소들(흰 바탕) 사이에서 화소 값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 외곽선과 그것에 인접한 화소들을 제외하고는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화소 간 중복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의 경우는 5개 도형의 외곽선 이외에, 별을 제외한 4개 도형의 내부에서도 검은 점부터 흰 점까지 화소 값이 다른 화소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끼리도 화소 값의 차이가 큽니다. 또한 ㉯의 경우는 별을 제외한 4개 도형의 내부에 있는 화소들이 가지고 있는 화소 값의 변화도 상당히 불규칙적이므로 화소 간 중복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의 경우 이전 화면과 현재 화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규칙적이라고 해석한 이의 제기가 있으나, ㉥ 지문에서 화소 간 중복은 한 화면 안에서 파악하는 것이라 하였고 문항에서도 '현재 화면 내의 화소 간 중복 정도'를 물었으므로 이전 화면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평가원 문제 해석에 대한 재해석 및 학생 입장에서의 수용 여부〉

㉠, ㉤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학생들은 '화소 간 중복', '화소 간 중복'을 지문에서 제시하는 대로 추론하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평가원에서는 ㉡,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의 단어 추론을 '지문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풀이 과정이 가장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풀이라는 것을 평가원의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원의 해석을 보면, '모르는 단어 → 지문에서 확인 → 문제의 적용'이라는 간단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다루었던 2007학년도의 문제, 그리고 이번 2009학년도의 문제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해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출제자의 사고'라고 하여 시중에서 떠드는 복잡한 이론이나 독해 기술들은 오히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의 의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원의 해석에서 보듯이 출제자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장 기초적인 문제 접근법으로 해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초적인 것을 100%로 연습하는 것이 앞으로의 공부 방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해석 중, ㉢과 ㉣은 학생 입장에서 실제 시험 시간에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던 문제 풀이처럼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들, 즉 '화소 값 차이' 라는 것의 의미 추론, **'단락3-6'** 에서의 보조 근거 추론 등으로 그 해석을 좀 더 명확하고 학생 지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의 제기를 한 것은 일반 학생들의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의 제기까지 하는 학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100%의 문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검토

지금까지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고난도의 문제를 통해서 과연 100%로 생각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고난도 문제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문제 해석을 통해서 고난도 문제에서도 요구하는 능력은 시중의 언어 교재나 강의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복잡하거나 매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step-1의 공부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100%로 연습하는 것은, 거창하게도 '출제자의 의도' 에 부합하는 것임을 직접 출제자의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능력이라도 그것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확인한 것처럼 일반 기출문제집이나 강의에서는 결코 100%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또한 때로는 문제의 해결 방향조차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연습을 위해서 100%의 사고를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장애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step-1의 단계에서 100%의 사고를 하는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습하고 엄선된 문제에 대한 적용을 통해 이러한 풀이 능력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연습하는지 알아봅시다.

4 연습에서 꼭 해야만 하는 100%의 문제 풀이

(1) 도입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독해 연습이나 기초적인 문제 풀이 연습은 모두 100%로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문제를 푸는 과정은 그러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근거 범위를 축소하고 정답을 확정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100%의 문제 풀이를 하는 과정은 일관된 이론 제시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푸는 것(특히 설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문제들(정답률 50~60% 정도로 해당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을 보다 완벽히 풀어 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며 문제 풀이 사고를 확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를 앎으로써 열을 깨우치는 식의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어려웠던 문제 속에는 평소 공부를 하면서는 건드리지 못했거나 마주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장벽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러한 측면을 꼭 건드려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시험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문제를 잘 풀지 못하고, '시험 경향이 바뀌었다', '기존 문제집에서 다루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달라진 것은 없고 꾸준히 잘하는 학생은 계속 잘하기 마련입니다.

(2) 질문을 던져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에도 언급했었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 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것의 답을 구하려고 하는 자세가 여러분의 문제 풀이를 보다 세밀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언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여기서는 이런 단어를 썼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 그 이유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의문이 들지 않아도 스스로 문

제를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번 책에서도 그러한 이유로 일반 기출문제 해설집의 활용을 부정적으로 언급하였었습니다. 기출문제를 활용한다는 것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자발적인 질문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처음 문제 풀이 연습시에는 해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열심히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스스로도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이 책과 같은 해설들을 스스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답과는 연관이 없을 지라도 지문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려 노력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는 연필을 굴려서 찍어도 그 답만 맞출 수 있다면 그것이 우선하겠지만, 연습의 기간에서는 단순히 답만 맞았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운이 좋아서 답을 맞고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면, 그것만큼 공부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를 구성하는 것들은 모두 그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답과 연관이 있든, 그렇지 않든……. 따라서 그러한 이유에 주목할 때, 숨겨진 힌트를 발견할 수 있고 좀 더 출제자가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잡아 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문제를 통해 함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